



오늘의 말씀 - 목 (출 8:16-24)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

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본문 이해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그같이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 떼를 보내리니 집과 땅에 파리 떼가 가득하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적용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8:8, 15),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도 없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하려고 해봤지만 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19)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차리고, 바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바로의 자존심과 교만을 꺾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보

면서 자기들도 할 수 있다며 바로를 부추겼던 것이 뼈아픈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은 애굽의 왕권에 치명타가 됨으로 끝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레 마음을 더 완강하게 먹고 더 깊은 재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파리 떼가 왕궁과 집들과 온 땅에 이르니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아무런 차등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악한 자가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 5:45; 전 9:2)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고센을 구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복을, 바로에게는 저주를, 다윗에게는 복을, 사울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큰 구렁

텅이로(눅 16:26)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로를 통해 고집스런 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8:25-32)